“밀양 화재 참사 희생자 극락왕생을”

조계종 천태종 관음종 등 합동분향소 잇달아 방문

설정 스님, 재발방지 요청
유가족 위한 지원금도 전달
밀양사암聯, 49재 기도 입재
“슬픔 극복에 마음 모아달라”

윤호섭 · 하성미 · 박진형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등은 1월 29일 밀양 합동분양소를 찾아 조문하고 세종병원 화재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한 불교계의 행보가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1월 29일 밀양문화체육회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방문, 화재로 희생된 고인들의 넋을 위로했다.

설정 스님은 세종병원서 사고를 당한 故김삼석 할머니 빈소를 찾아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유가족들과 아픔을 공유했다.

이어 스님은 박일호 밀양시장에게 “유족과 밀양시민들의 아픔이 아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모든 사람이 미리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며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태고종과 천태종, 관음종 등 불교 각 종단도 대표들이 밀양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태고종은 1월 27일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을 비롯해 50여 스님들이 밀양합동분향소를 찾아 위로와 함께 성금을 박일호 밀양시장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을 비롯한 천태종 종단 스님 50여 명도 1월 28일 밀양합동분향소를 찾았으며 관음종은 29일 총무원장 홍파 스님, 교육원장 도선 스님 등 11명을 대표로 한 분향단을 꾸려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다.

밀양불교계는 이번 참사 극복을 위한 기도에 들어갔다. 밀양불교사암연합회는 연합회장 태우 스님과 표충사 주지 법기 스님, 밀양 용궁사 정무 스님 및 밀양불교사암연합회 임원진, 포교사단 등 100여 명으로 된 조문단이 27일 밀양 합동분향소를 방문한데 이어 각 사찰에서 화재 참사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위한 현수막을 걸고 추모기도를 입재했다.

참사 49일인 3월 15일까지 기도를 진행하며 49일째에는 밀양시민이 동참하는 합동위령재도 열 계획이다.

사암연합회장 태우 스님은 “밀양 화재 참사는 밀양시민을 넘어 온 국민의 슬픔이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희생자들은 왕생극락하셨을 것”이라며 “남은 가족들이 슬픔을 극복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충사 주지 법기 스님은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유가족들의 아픔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피해 극복을 기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희생자는 2월 1일 현재 사망 39명, 부상자 152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 중 3명이 위독하며 9명이 중상인 상태로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밀양시는 2월 3일 합동위령제를 열 계획으로 조문객이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영상 강좌 안내서’ 조계종 교육원서 발간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종단 스님들의 자율적이고 일상적인 교육을 위해 추천 동영상 강좌 안내서 ‘불교 속 불교, 불교 밖 불교’를 발간했다.

교육원의 안내서는 1부 ‘불교 속 불교’와 2부 ‘불교 밖 불교’로 구성됐다. ‘불교 속 불교’는 훌륭한 불교 강의라고 평판이 나있는 스님들과 불교학자들의 강의 콘텐츠로, 온라인으로 접속해 들을 수 있는 강의를 모았다. ‘불교 밖 불교’는 인문 · 사회 · 과학 등 각 분야 전문가의 강의 모음이다.

소개되고 있는 강좌들은 유튜브(YouTube), 테드(TED), 교육방송(EBS), 불교TV(BTN), 불교방송(BBS) 및 종편 방송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쉽게 만날 수 있는 강의 콘텐츠들이다. 조금 더 관심을 있다면 오마이뉴스의 ‘오마이스쿨’이나 아트앤스터디의 특강, 국내 대학의 500개 이상의 강좌가 무료로 탑재돼 있는 ‘한국형 무크(K-MOOC)’의 다양한 온라인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교육원은 “종단 스님들의 요청에 따라 안내서를 증보 · 발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IoT 기술 도입… 예방적 방재 나선다

문화재청, 신년 회견서 방재 5개년 계획 발표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이 예방을 중심으로 한 방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문화재청은 1월 30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숭례문 방화 사건 10주년을 맞는 올해부터 예방에 중점을 둔 문화재 방재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그간 재난방재대책에 대한 분석 평가로 다양 · 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문화재 방재 5개년 계획에는 △방재시설 확충 △전문인력 배치 △관계자 교육 · 훈련 △첨단시설 문화재 방재 도입 등의 세부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첨단 문화재 방재시스템 도입은 눈길을 끈다. 문화재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방재기술을 문화재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상시관리가 어려운 문화재 현장에는 인터넷 체계를 구축해 긴급대응체계를 확보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현장별 대책 수립의 판단근거를 제공하는 문화재 방재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한다.

문화재 소유자 · 관리자 안전교육을 사찰과 고택 문화재 관계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문화재청은 “재난 발생 시 문화재 소유자 · 관리자 등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건축 문화재 현장마다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 · 비치하는 등 현장대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옥외 소화전과 자동화재 속보설비 등 소방 설비 보강, 화소수와 야간 식별능력을 높인 폐쇄회로 TV(CCTV) 등 문화재 방재 인프라 구축도 확대할 방침이다.

늘어나고 있는 지진을 대비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우선적으로 경주 등 지진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 위험지도를 제작하고, 건축문화재 내진 성능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동산 문화재 전도 방지를 위한 면진대 설치도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대응과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고 국민에게도 문화재 방재의 필요성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유마거사처럼 청와대 佛心 증장”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1월 30일 청불회장 공식 취임


하승창 청불회장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신임 청와대불자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청와대불자회는 1월 3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서 ‘청와대불자회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 하승창 회장의 취임을 알리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불자들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취임법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설정 스님을 종단협 회장단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김상규 공무원불자연합회장 등 각계 신행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하 회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저는 이제 막 불도에 입문한 초심자다. 이런 제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대자대비한 원력을 사바세계에 바르게 실천해야 하는 청불회장을 맡아 무겁고 진지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청와대불자는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는 유마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공직자에게는 깊은 윤리관과 국가관, 애민정신이 요구되는 만큼 국민을 부처님처럼 섬기면서 낮은 곳에 계신 국민의 소리를 귀하게 듣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이어 “종교간 화합에 앞장서면서 불교계 현안이 불통으로 인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사부대중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는 문재인 정부의 진심을 알아주시길 바란다”면서 “제천, 밀양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법사로 나선 설정 스님은 “훌륭한 국민정신이 정립될 때 위대한 국민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청와대불자회가 신심과 원력, 공심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정과 국가 발전,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불교는 정법이다. 바른 법이자 맑은 법이고, 밝은 법이다. 모든 생명을 아우르는 것이 불교인만큼 삼보의 의미를 잘 알아 바른 불자의 삶을 살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 정권은 남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헤쳐나아가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 훌륭한 인품을 가진 청불회장을 중심으로 대통령을 보좌해 더불어 나누고 공생하는 나라가 되도록 해주시길 축원드린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과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상규 공무원불자연합회장은 축사에서 청와대불자회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한편, 안으로는 불심을 돈독히 하고 밖으로는 불교를 외호하는 신행단체로 더욱 성장하길 기원했다.

한편 법회에 앞서 하 회장을 비롯한 불자들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종단협 회장단을 예방했다. 이 자리서 설정 스님은 하 회장에게 ‘송도(松道)’라는 호를 수여하며 “소나무는 고고함과 희망을 의미한다. 희망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 회장은 “잘 새겨서 호를 쓰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글=윤호섭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조계종 사회노동위 종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부위원장을 확대하면서 대사회적 활동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은 1월 29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령’을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2월 19일까지.

사회노동위 종령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을 출 · 재가자 30인 내외로 구성 △부위원장 수 증원 △자문위원회 삭제 △조 제목 수정 및 조직 정비에 따른 내용 수정 △실천위원 삭제 등을 주요골자로 한다.

조계종 사회부는 종령 개정 취지에 대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스님들의 실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위원장을 늘려 책임감을 부여하고 대사회적 활동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회부는 또 “스님들의 사회노동위원회 겸직 해소로 단일조직화가 가능해져 사회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불교의 사회적, 종교적 신뢰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형 기자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